

## 구강 및 구인두 악성종양의 하악골보존접근법에 의한 절제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

김 민 식\*

**목 적 :** 구강 및 구인두 악성종양에 대한 수술적 접근법으로서 시야확보와 안전한 절제연을 얻기 위하여 하악골 절개를 통한 접근법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술 후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고 방사선치료를 적기에 시행할 수 없어 하악골 보존접근법이 선호되고 있다. 저자들은 최근 7년간 하악골 보존접근법에 의한 구강 및 구인두 악성종양 수술 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.

**방 법 :** 1994년 2월부터 2001년 4월까지 강남성모병원에서 구강 및 구인두 악성종양 수술을 시행한 환자 총 80예 중 pull-through 접근법과 외측인두접근법으로 종양을 제거한 37예를 대상으로 병기, 절제연, 합병증, 재발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.

**결 과 :** 환자의 평균연령은 55세였으며 원발병소는 설암이 24예, 편도암이 11예, 구강저암이 2예였다. 원발병소의

병리조직학적 소견은 편평상피암이 34예로 대부분이었고, 선양낭포암이 2예, 선암이 1예였다. Pull-through 접근법으로 수술한 예는 22예였고, 외측인두접근법으로 종양을 제거한 경우는 15예였다. T병기는 T1 3예, T2 21예, T3 7예, T4 6예였고, 악성종양이 절제연에 근접한 경우는 5예(14%)였으며 4예(10.8%)에서 국소 재발하였다. 구강 식이 시작시기는 평균 술 후 26.0일이었고, 재원기간이나 외래 추적관찰기간동안 하악골보존술식에 의한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.

**결 론 :** 구강 및 구인두 악성종양 환자에서 하악골보존접근법으로 종양을 제거한 경우에 대부분에서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였고 재발도 적으며 술 후 합병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유용한 접근법으로 생각된다.